

강 이야기

6

River & Culture



이영희 | 초록미당영농조합법인
(dyfarm@hanmail.net)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억새 차이란?

1. 머리글

가을하면 단풍과 산정상의 억새 군락의 장엄한 모습이 연상되는 계절이다. 금빛의 억새 군락을 보고 있노라면 바람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억새군락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가치가 있다.

산 위에서 바라보는 억새 군락을 보며 갈대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닷가 습지에 자라는 갈대를 바라보며 억새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이렇듯 쉽게 구분이 가능한 식물임에도 막상 이네 가지를 섞어 심어 놓으면 어느 한 사람 쉽게 구분하는 이가 없다.

그냥 바라만 보아도 구분이 가능한 식물의 서식환경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식재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수질정화의 기능이 뛰어난 갈대, 달뿌리풀도 서식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달뿌리풀은 키가 1m에서 1m 50cm 정도 자라며 자주색 꽃을 피운다. 잔자갈이나 모래가 많은 작은 하천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하천 상류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하천의 물 위로 뿌리줄기가 뻗어나가 하천수면 위로 식물줄기가 있다면 달뿌리풀이다.

하지만 갈대는 다르다. 큰 하천이나 강가에 자라며 자갈땅

보다는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진흙이나 뺨에서 주로 자라며 뿌리줄기가 땅속으로 뻗어 번식하며 식물체의 키는 2m에서 3m 정도까지 자란다. 키가 큰 만큼 꽃도 소담스럽게 달리며 꽃차례가 모여서 자란다.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만 하는 식물이지만 쉽게 구분을 못해서 자연하천 조성이나 정화하천 조성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갈대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사니질(모래와 진흙이 섞인 토질) 토양의 퇴적층에 식물이 식재하여 정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종임에도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억새와 물억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억새는 산 위나 제방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로 주로 건조지에 자생하며 잎에 톱니가 있어 맨살에 스치면 베어져 다치기도 한다. 번식 방법은 종자나 촉(식물체의 줄기에서 새순이 생기는 것)으로 번식하며 한자리에서 모여서 난다. 또한 꽃은 금색을 띠며 꽃대만 뻗어 올라와 자란다. 뿌리는 붉은색을 띠고 일정포기 이상 번식을 하면 더 이상 번식하지 않는다.

물억새는 이름 그대로 물가에 자라는 식물이며 번식방법은 종자나 뿌리줄기(굵은 뿌리가 생장점으로 된 것)로 번식

1) 꽃대에 달린 꽃이 들 이상 집단을 이루어 피는 모양, 화서(花序)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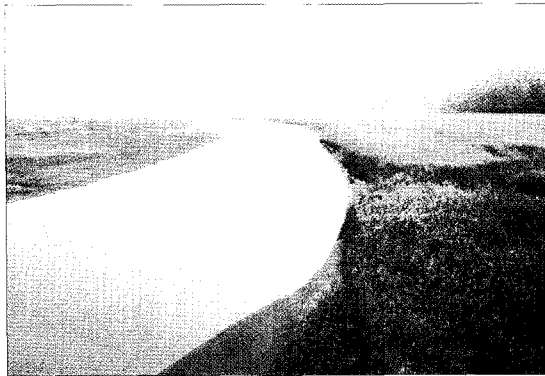
하므로 줄기가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군락을 이룬다. 물역새는 꽃이 은색으로 꽃대가 잎에 쌓여 올라오며 억새보다 연하여 바람에 하늘거린다. 주로 하천변에 자생하며 절개지나 대량피복지에 이용이 가능한 수종이다.

2. 갈대와 달뿌리풀의 비교

2.1 갈대의 특징



〈그림 1〉 갈대



〈그림 2〉 갈대 군락지

*** 형태** 지하경은 다수의 마디가 있고, 약 지하 30~100cm 깊이에서 옆으로 뻗으며, 마다에서 가지와 수염뿌리가 나온다. 가운데가 빈 기둥 형으로 표면에 털이 있거나 없다. 잎은 두 줄로 어긋나며 끝이 길게 뾰족해지고 길이 20~50cm, 폭 2~4cm이다. 줄기와 거의 수평을 이루나 끝이 아래로 처진다. 8~10월에 줄기의 끝에 자갈색 또는 황갈색의 20~50cm 크기의 원주형으로 생겨 모여서 달린다.

*** 번식** 주로 지하경을 이용하여 번식하나 식생

번식도 잘 자란다. 씨앗 채취는 11월말에서 12월에 채취한다.

* 분포지역

- 냇가나 강 하구의 점토질의 땅, 습지나 수중에서 자란다.
- 하천의 중하류 또는 하구지역의 불안정한 수제부, 수심 1m 미만의 장소, 저지대의 습지에 많이 자생하고, 일반적으로 모래진흙의 질수분이 많고 부영양화된 땅에서 자생한다.
- 해안가 염습지에 자란다.

2.2 달뿌리풀의 특징



〈그림 3〉 달뿌리풀



〈그림 4〉 달뿌리풀의 군락지

*** 형태** 근경은 가늘고 길게 지상으로 뻗으며 각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줄기는 원주형이고 높이는 2m 안팎.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짧으며 연한 털이 나왔다. 잎은 어긋나기하며 끝이 길게 뾰족해지고 폭은 2~3cm, 회록색이고 단단하다. 윗부분에 자줏빛이 돌며 엽설은 털이 줄로 돌아난 것 같다. 위를 향한 잎의 상부에 탁한 자색의 띠를 형성



한다. 8~10월에 자주색으로 개화하고, 원주꽃차례의 넓은 난형이고 길이는 30cm, 가지는 거의 돌려나기하고 긴 털이 있으며, 나중에 자갈색으로 변한다.

*** 번식** 주로 땅위를 기는 줄기의 각 마디에서 선형의 잎과 뿌리가 나와서 번식하며, 재배시에는 씨앗 파종을 한다.

*** 분포지역**

- 하천 상류의 모래땅, 화원에 물의 흐름이 약한 부분이나 지하수위가 0~30cm 정도 되는 곳에 많이 생육한다. 홍수가 난 후 물이 약하게 흐르게 될 때 산뽕속 등의 생육지에 침입하게 된다.

2.3 갈대와 달뿌리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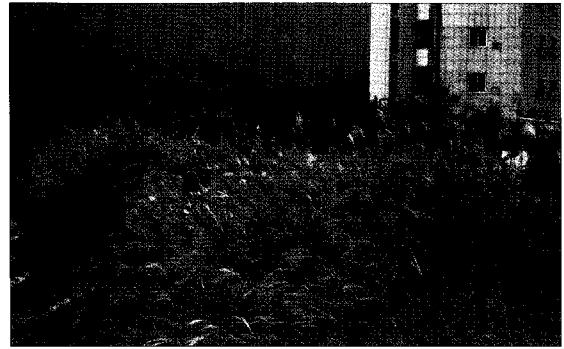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자루가 모여서 자란다. - 땅속줄기로 뻗어 번식하나 염습지에는 땅 위로 뻗어 번식한다. - 점토질이 많은 퇴적층에 많이 분포한다.
갈대	
달뿌리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자루가 어긋나서 자란다. - 크기 1~1.5m로 땅위로 덩굴뿌리를 뻗어 번식한다. - 하천 상류에 많이 분포하며 모래땅, 자갈땅에 잘 자란다. - 염습지에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 

3. 물억새와 억새의 비교

3.1 물억새의 특징



(그림 5) 물억새



(그림 6) 물억새 근락지

*** 형태** 줄기는 단단하고 두꺼우며 마디가 있다. 근경은 길고 옆으로 뻗는다. 잎은 선형이고 길이는 40~80cm, 폭 1~3cm로 줄기에서 바로 나온다. 중앙 맥이 백색으로 굵고 뚜렷하며 꽃이 필 때에는 기부와 잎의 말라죽는다. 줄기 상단의 길이가 30cm 가량의 꽃차례에 다수의 가지가 조밀하게 달린다. 잔 이삭은 까락이 없고 자루가 긴 것과 짧은 것이 쌍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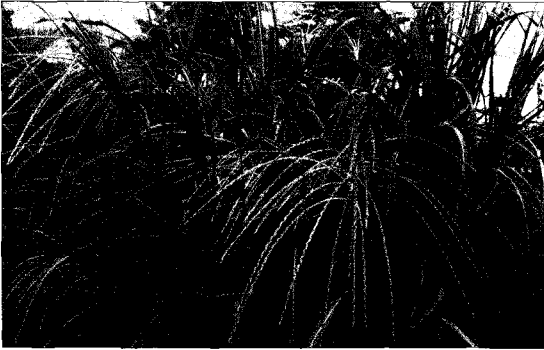
*** 번식** 마디에서 발아하여 생육하거나 근경이 자라서 줄기를 내어 번식하며 재배시에는 씨앗 파종을 한다.

*** 분포지역**

- 가는 모래-모래진흙토양의 수변의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란다.
- 강가 언덕 지하수위 10~30cm 부근에 생육하며, 인간의 이용에 의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 물가의 습지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3.2 억새의 특징



〈그림 7〉 억새



〈그림 8〉 억새 군락지

*** 형태** 높이 1~2m로, 뿌리줄기는 모여서 나고, 굵으며 원기둥 모양이다. 잎은 줄 모양이며 길이 40~70cm, 나비 1~2cm이다.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고 가장자리는 까칠까칠하다. 뒷면은 연한 녹색 또는 빛을 띠고 앞면은 흰색 막질(膜質: 얇은 종이처럼 반투명한 상태)이며 길이 1~2mm이다. 꽃은 9월에 줄기 끝에 부채꼴이나 산방꽃차례로 달리며 작은 이삭이 촘촘히 달린다. 꽃차례 길이는 10~30cm이고 가운데 축은 꽃차례 길이의 절반 정도이다. 길이 4.5~6mm의 작은 이삭은 노란빛을 띠며 밑동의 털은 연한 자줏빛을 띠고 길이 7~12mm이다.

*** 번식** 마디에서 발아하여 생육하거나 근경이 자리서 줄기를 내어 번식한다.

* 분포지역

- 물억새는 물가 습지에 무리지어 분포하지만 억새는 전국

각지의 저지대에서 고지대에 분포하는 차이만 있고 나머지 분포지역의 특성은 동일하다.

- 가는 모래-모래진흙토양의 수변의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란다.

- 강가 언덕 지하수위 10~30cm 부근에 생육하며, 인간의 이용에 의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3.3 물억새와 억새의 비교

물 억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은색을 띠며 꽃자루가 부드럽다. - 뿌리줄기로 번식하며 흰색을 띤다. - 종자는 억새보다 작다.
억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금색을 띠며 꽃자루가 부드럽지 못하다. - 축으로 번식하며, 잔뿌리는 붉은 색을 띤다. - 종자는 물억새보다 크다.

4. 나오는 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조금이나마 갈대 등을 이해하며 “이게 갈대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갈대밭은 갈대밭으로, 달뿌리풀은 달뿌리풀로 제 이름대로 불렸으면 좋겠다. 식물을 야끼고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달뿌리풀, 갈대, 억새, 물억새가 자기에게 맞는 서식환경에서 잘 자라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본다. 🍎